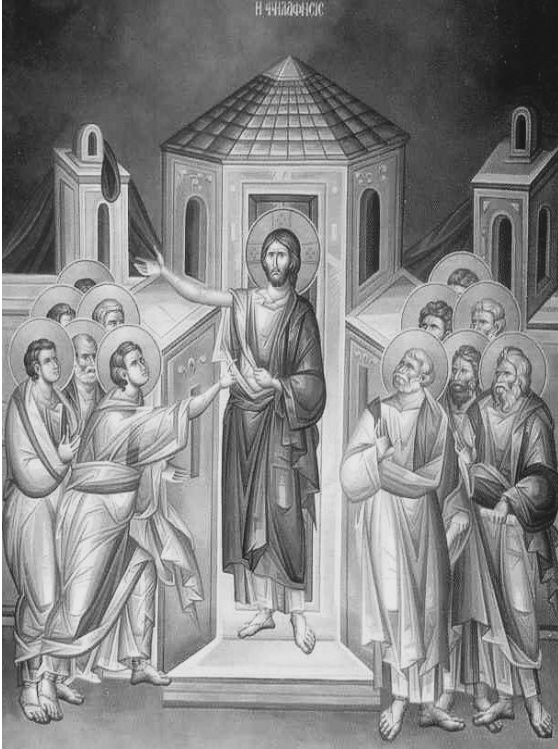




# 정교회주보

## 정교회 한국대교구



부활 후 제 2주일 / 토마 주일

성 바실레오스 주교순교자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오늘 구원이’ 대신 토마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토마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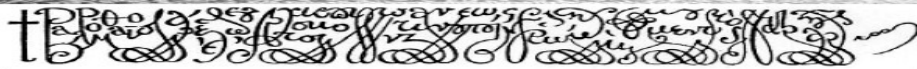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5:12~20 / 250, 봉독서 34

• 복음경 : 요한 20:19~31 / 97, B14

• 그 밖의 성가와 성모송, 영성체송은 부활절 축일과 같음.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2020년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 부활절 메시지

새 로마 -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자 세계총대주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스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축복과 용서가 온 교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의 참여자가 되어, 죽음으로 죽음을 짓밟고 아담의 후손을 함께 부활시키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낙원의 문을 여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화려한 부활은, 분명하게 세상 생명의 주관자가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세상을 무너뜨린, 처음에는 육신이 없는 말씀이셨다가, 우리를 위해 육신을

☞ 2면으로 계속

취하시고, 사람으로서 죽으셨다가 하느님으로서 부활하셔서 하느님의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구세주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의 신비와 체험은 교회적 삶에서 핵심입니다. 찬란한 예배들, 거룩한 성사들, 기도의 삶, 금식, 수련, 사목적 봉사 그리고 세상에 좋은 증거자가 되는 등, 이 모든 것들은 부활로 인한 기쁨의 향기를 발산합니다. 교회에서 신자들의 삶은 매일이 부활절, “위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의 기쁨” 그리고 “기쁨 같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 대주간의 예배들은 슬픈 애도의 예배가 아니며, 부활이 주는 승리의 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배들에서 드러나 나타나는 것은 세상과 인류의 구원 계획에서 십자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라자로의 부활토요일에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친한 친구가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것은 “공동 부활”의 본을 예견한 것입니다. “오늘 나무에 달리셨도다.”라는 찬양은 “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내소서.”라고 부르는 부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나는 당신의 수난을 찬양하나이다. 당신의 부활과 무덤에 영광 돌리고 찬송드리나이다.”라고 에피타피온 예식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식에서는 “십자가가 온 세상에 기쁨을 가져왔도다.”라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부활의 “선택되고 거룩한 날”은 “여덟 번째 날”의 여명이고,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고, 우리 자신의 부활의 경험이고, “나의 구원의 경이로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난을 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부활을 보장하신” 것은 살아있는 확증입니다. 부활절 기간 동안, 사람을 종에서부터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인류학적 의미는, 비교될 수 없는 시적 표현으로 찬송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구원은, 세상에서 신성한 감사의 성사의 모습으로 역동적으로 확대된 것과 같이, 최후의 왕국에서 신성한 사랑의 궁극적 표현의 충만함의 이미지가 되기 위해, 교회 안에서 새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사도들의 모본에 따라 “땅 끝까지” 복음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올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요한복서 21:4) “새로운 창조”에 대한 기대와 은혜의 실질적인 증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우리 자신의 공동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세상의 삶에서 죽음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믿음과 심리적 범위를 통해 가혹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안심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삶이 삶의 전체가 아니고, 우리는 “여행자”로서 그리스도께 속해있고, 주님의 영원한 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의 존재는, 손에 잡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현실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죽음의 분명한 폐지입니다. 하느님의 왕국에는 고통도 죽음도 없고 끝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 전에는 죽음은 사람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광스러운 수난 후에는 사람이 죽음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시련을 견딜 인내와 참을성과 힘을 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병을 치료해주시고, 죽

음으로부터 해방시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분이며,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하느님의 자애는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사랑의 음성은, “안심하여라.(용기를 가져라)”(마태오 9:2)라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여라.(용기를 가져라)”(마태오 9:22)라고 하혈병을 앓던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고 주님께서 수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라”(사도행전 23:11)라고 이방인들의 사도인 바울로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감옥에 있을 때, 울렸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취약한지, 두려움과 낙담에 의해 얼마나 쉽게 지배되는지, 우리의 지식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에 맞는 한 사건이며 죽음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죽음을 망각하고 반감을 가지면 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라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죽음을 실제로 무적이고 극복할 수 없는 경계라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존재를 단호하게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한계상황은 보여줍니다. 영원에 대한 희망 없이는 인간으로 남아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희망은 고통 받고 있는 형제들을 지원하고 있는 모든 의사들, 간호사들, 자원 봉사자들, 기부자들의 마음에 희생정신, 자기 희생, 사랑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설명 할 수 없는 위기에서 그들은 부활과 희망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며, 환자들의 골고타에 함께하는 현대의 “키레네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가장 존경받는 형제들과 사랑하는 자녀여러분,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당신의 빛으로 생명을 제공하고, 부활의 빛으로 온 우주를 기쁘게 하신, 모든 것을 초월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영혼과 육신의 사이신 주님께서, 인류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온전한 자애로 귀중한 선물인 건강을 우리들에게 주시어,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 자유는 하늘왕국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완전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기원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열렬히 탄원하면서**

**2020년 거룩한 부활절에**

**† 바르톨로메오스 콘스탄티노플의 세계총대주교**



## 영적성장을 위한 비타민

신앙의 신조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기

AD 4세기에 교회는 전체 교회를 위한 단일하고 공식적인 신앙의 신조를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제 1차와 2차 세계공의회를 통해 니케아신조가 탄생하였다. 세계공의회로 모인 교회에 의해 신앙의 신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이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도리어 그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 교회의 신앙을 표현한 것이 바로 **전체 교회**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어떤 유한한 신앙고백도 무한하신 하느님에 대해 전부를 말해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신앙의 신조는 단지 성령의 감화를 받아 기록한 인간적 진술로서,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니케아신조를 외울때마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했던 신앙고백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다음과 같은 바울로 사도의 가르침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롬 10:9)**

그렇다면 매일 하는 기도 속에서 신앙의 신조를 외우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아타나시아

## 소식

### 대교구

#### 부활 축일.

올해도 축일 중에 축일인 부활절 축일을 하느님의 은총으로 다시 한 번 풍성한 기쁨 속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진 못했지만, 신자 분들께서 가정에서 인내를 가지고 생중계를 통해서 모든 예배에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하느님의 도움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성당에 모여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부활 달걀과 성유 전달.

올해 부활절은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부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부활의 경축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성당에서는 부활절 사랑의 대만과 끝난 후에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님과 안토니오스 임종훈 사제, 요한 박인곤 보제, 운영위원회 마태오 이경섭 부위원장, 베로니카 박인애 사무장님께서 달걀과 성 대 수요일날 거행된 성유성사의 성유와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부활절선물을 신자 분들 가정에 직접 가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전달이 되지 않은 분들은 성당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